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2014년 5월 16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산업기술시장과 유법민 과장(2110-5397), 강규형 사무관(2110-5194)

산업부, 『산업엔진 창출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』 발표

- **투자 : 新성장동력펀드 회수금, 민간자금 출자 등을 활용하여 1.5조원의 펀드 조성** ('14~'21)
  * 정부 (0.6조원), 민간자금 출자 (0.95조원) 등을 통해 재원 확보를 추진
- **융자 : 기술 중소기업에게 31.4조원의 누적 신규 융자 지원** ('14~'21)
  * 전담-RCMS 은행 여타부처로 확대 (31.1조원), IP 담보대출 (0.3조원) 등
- **기반 : 산업기술금융 포럼 운영** ('14~, 매월) **등을 통해 '산업계와 금융계간의 소통의 장' 확대**

□ 산업통상자원부 (장관 윤상직)는 5.15(목), 기술센터에서 개최되는 **산업기술금융 포럼*** **운영위원회**에서 **『산업엔진 창출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』**을 발표

* 작년 12월부터 매월 개최된 포럼으로 **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**을 위해 **산업계와 금융계의 협력·활성화에 필요한 소통의 장**

【 기술금융 개념 및 현황 】

▲ **기술금융 개념** : '기술개발-창업-사업화-성장' 등 기술혁신 全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을 **기술력 중심의 평가**를 통해 **공급**하는 것을 의미

▲ **기술금융 현황** : 외환위기 이후 **전체 금융공급 규모는 꾸준히 증가**[1]한 반면, 기업 **금융의 비중** ('00년 52.2% → '12년 44.3%)은 **지속적으로 감소**[2]

1) ('00) 504조원 → ('03) 775조원 → ('06) 941조원 → ('09) 1,367조원 → **('12) 1,626조원**
2) 가계금융 : 기업금융 비율(%) - ('00) 47.8 : **52.2** → ('12) 55.7 : **44.3**
- 기업금융에서 기술금융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'00년대초에 비해 **절반 수준으로 감소***하여 **기술기반 기업들의 금융환경이 악화**
  * 기업금융 中 기술금융 규모 : ('00) 15.4 조원 **(5.9%)** → ('12) 22.5 조원 **(3.1%)**

○ 국가 **新산업**의 **창출**과 **지속적인 성장**을 위해서는 R&D지원뿐만 아니라,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**튼튼한 기술금융 지원체계가 절실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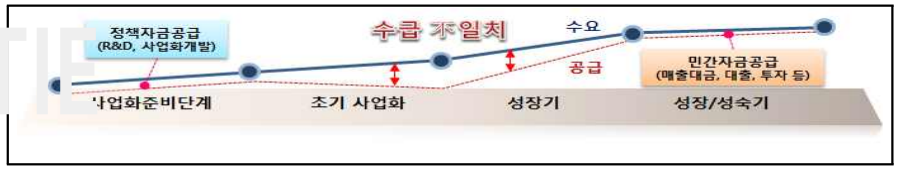
- 다만, 민간금융의 보수화 등 **열악한 국내 기술금융 환경**은 검증되지 않은 **새로운 산업 분야**에 대한 **'돈가뭄'**을 **해소**하기에는 **역부족**

○ 아울러, 우수한 기술력이 있는 **기술 집약형 기업**들은 R&D 성공 후 **제품화, 시장 확대** 등을 위해 **추가적인 자금 수요**가 **급증**하나,

- 정책자금은 'R&D 단계', 민간자금은 사업화 검증이후인 '성숙기'에 집중되어, **'초기사업화·성장기 단계'**에서 **자금수급 불일치**가 **발생**

* (시스템반도체 J기업 사례) 국내외 수주증대로 '13년의 경우 100억원대의 매출을 기대했으나 전년 매출규모('12년 10억원)가 적어 은행이 대출을 기피
→ 결국 '13년 매출은 35억원 수준 예상

【 성장단계별 기업의 소요자본 규모 】



※ 초기 성장기 기업 (67개) 자금수급 조사 결과 ('13.6월, KIAT)

○ 이에, 산업부는 **新산업**의 **육성**과 **기술집약형 기업**의 **사업화 지원**을 위해 **▲ 펀드 조성, ▲ 기술기반 융자 확대, ▲ 기술 투·융자 촉진**을 **위한 기반 확충** 등을 골자로 **지원책을 마련**

□ (투자) **총 1.5조원 규모의 산업기술펀드 조성** ('14~'21)

○ 우선, 투자에 필요한 재원은 **新성장동력펀드 회수금, 민간자금 출자** 등을 통해 '21년까지 **총 1.5조원 규모*를 확보 추진**

* 新성장동력 펀드 회수금 등 정부재원 (0.6조원), 민간매칭 (0.9조원) 등 활용 검토

○ 同 로드맵은 **'산업육성형'**과 **'성장지원형'**으로 구분하고, 펀드 유형에 따라 자금수요, 리스크 등을 **고려**하여 **정부재원 배분규모**와 **정부 지분비율**을 **결정**

- '산업육성형'은 **20대 '산업엔진'** (산업부)**과 '미래 성장동력'** (미래부)**분야** 및 **'핵심 두뇌' 분야*** 기업군의 육성을 위한 **자금**을 **체계적으로 지원**

* 엔지니어링, 디자인, 임베디드SW, 시스템반도체, 바이오 (~'18, 총 300개 지정 예정)

- '성장지원형'은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들의 **자금 공백기**가 발생하는 **'초기 사업화와 성장기 단계'를 극복**하기 위한 **자금**을 **중점 지원**

※ 특히 성장지원형 펀드는 기존 벤처캐피탈 출자방식에서 탈피하여 **공동 투자매칭형***이라는 새로운 출자방식을 도입하여 **정부재원을 주목적에 부합하는 기업에 최대한 투자할 수 있도록 추진**

* **벤처캐피탈**이 旣 조성·운영 중인 펀드를 활용하되, **해당 벤처캐피탈이 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기업군을 발굴**하여 **제안시 심사하여 매칭 출자하는 방식**

□ (융자) **금융권의 기술기반 대출 31.4조원 확대** ('14~'21)

○ '13년도부터 운영 중인 산업부의 **'R&D 사업화 전담은행'**[1]고 **'RCMS 금고은행'**[2]을 '14년부터 여타부처 (전담은행 : '14~, RCMS : '15~)로 확대하여 **'21년까지 기술 중소기업에게 약 31.1조원** (年 약 4.5조원)**의 저리 융자 유도**

1) 산업부 R&D 전담기관 출연금 ('13년, 약 3조 3천억원)의 예치를 조건으로 **기술사업화 추진 기업**에 **여신우대** 및 **무료 컨설팅을 제공하는 은행**
2) 산업부 R&D 주관기관들의 연구비 (정부 R&D자금과 민간 매칭자금)를 예치하고 사용현황을 **실시간 모니터링**(RCMS : Real-time Cash Management System)하며, **기술 기반 중소기업에게 여신우대 등을 제공하는 은행**

- 이와 더불어, 산업부는 기업의 기술가치를 평가한 후 보험가입을 통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**'기술대출보험制' 도입**도 검토할 예정 ('14.下)

○ **중진공**도 성장엔진 기업군을 포함한 **R&D 우수 중소기업**[1]에게 기술융자 자금의 **50%**를 **배정**하고, 기업당 **지원규모도 확대**[2] ('14.下)

1) '15년에는 우선 산업부·미래부·중기청의 성장엔진·미래성장동력 기업군 및 **R&D 성공후 5년이내 기업**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'16년부터는 여타 부처로 확대
2) 기술융자 규모 : 年 3,500억원 / 기업당 대출한도 : 최대 20억원까지 지원

○ 또한, 특허청도 '14년부터 5년간 **기업은행**을 통해 **기업이 보유한 IP를 담보로 약 2,500억원 규모**로 대출을 지원하고, 부실시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**'IP 전문회수펀드'**를 **약 300억원 규모로 조성 예정**

□ (기반) **기술 중소기업에 투-융자 촉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**

○ 산업부는 '**산업계**'와 은행, VC, 증권사 등 '**금융계**'간 정보 비대칭 해소 등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'**산업기술금융포럼**'을 **매월 운영** ('14~)

- 이와 함께, 정부 R&D 성공기업의 자금 수요를 **온라인으로 상시 접수**하여 **투·융자를 연계·지원하는 플랫폼도 구축 예정** ('14.下)

【 투·융자 연계플랫폼 운영도 】



- 또한, 『**산업부 기술혁신 평가관리지침**』을 **금년 중에 개정**하여, 기업이 **대출형 투자를 유치**하는 경우에 **일반 부채와 동일**하게 처리되어 **정부 R&D 지원에서 제외**되는 **불합리한 제도**를 **개선*** ('14.下)

* 정부 R&D과제 신청기업에 대한 부채비율 계산시, **최근 2년 동안 VC의 대출형 투자유치를 통한 신규 차입금의 경우 부채총액에서 제외**하여 산정

□ 정만기 산업기반실장은 금일 인사말을 통해 **국가 산업엔진과 미래 성장동력의 창출**을 위해서는 정부 R&D 정책과 더불어, **이와 연계된 체계적인 기술금융 지원책의 필요성**도 **강조**하면서,

○ 금일 발표한 대책이 산업계와 금융계간의 협업을 유도하여 국가 경제의 **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**했다는 점에서 **큰 의미를 부여**함

○ 아울러, 이번 대책이 **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계, 산업계 등의 관련 기관들의 지속적인 협조**를 당부함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강규형 사무관 (☎ 02-2110-519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 행사 개요

◈ 작년 12월부터 매월 운영한 '**산업기술금융 포럼의 실적점검**과 더불어, 정책분과와 함께 마련한 **기술금융 대책**을 **확정**하고자 함

※ 산업기술금융 포럼 : **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**의 **기술사업화 지원**을 위해 **산업계와 금융계의 협력·활성화**에 필요한 **소통의 장**

□ 행사 개요

○ **일 시** : 2014. 5. 15 (목) 17:00 ~ 18:00

○ **장 소** : 기술센터 3층 대회의실

○ **참 석 자** : 산업기반실장, 포럼운영위원* 12명, 산업기술시장과장 등 총 15명

* 금융 (투자기관 : 2개, 융자기관 : 5개, 공공 : 1개), 산업 (업체 : 3개, 협회 · 1개)

□ 주요 의제

○ **산업기술 금융 대책 발표** ('14~'21년까지 계획)

* ① 1.5조원 규모의 산업기술금융 펀드 로드맵, ② 사업화전담은행 등을 여타무처로 확대하여 31.4조원 신규융자 확대, ③ 산업계와 금융계간 소통의 장을 확대

○ **『산업기술금융 포럼』 및 『사업화 전담은행』 실적 및 계획 발표**

□ 세부 계획

시 간	내 용	비 고
17:00~17:03 (3분)	○ 인사 말씀	산업기반실장
17:03~17:18 (15분)	○ 주요의제 발표 - 산업기술 금융 대책 발표 (10분) - '산업기술금융 포럼' 및 '사업화 전담은행' 실적 및 계획 발표 (5분)	산업기술시장과장 포럼 사무국 (KIAT 김성재 단장)
17:18~17:58 (40분)	○ 토론	실장 주재
17:58~18:00 (2분)	○ 마무리 말씀	산업기반실장

* 사회 : 산업기술 금융 포럼 사무국장 - 산업기술진흥원 현종근 팀장

참고 2 운영위원회 위원 (총 12명)

성 명		소 속	학 력	경 력
조희철		기업은행	• 경북대 행정학 학사	• IBK 경서·제주지역 본부장 • 現 IBK IB본부 부행장
나종주		ATC협의회 (차기회장)	• 단국대학교 경영학 • Califonia State Uni. 경영학	• 現 (주)디케이씨코포레이션 대표이사 • 現 인하대 겸임교수 • 現 인천 산단본부 화학클러스트 회장
나우주 (대참)		㈜엘엠에스	• 배재고등학교 • 연세대 응용통계학 • 뉴욕주립대 MBA	• 엘지에스물산 • 現 엘엠에스 대표이사
안건준		㈜크루셜텍	• 부산대 기계공학 • 경북대 기계공학 석사	• ㈜럭스텍 CTO • 現 크루셜텍㈜, ㈜크루셜엠스 대표이사
양형학		동아기계	• 고려대 학사	• 現 동아기계 대표
양정규		아주IB투자	• 연세대학교 상학 • 美 위스콘신대 MBA	• 한국기술투자 대표 • 現 아주IB투자 대표이사
곽동걸		스틱 인베스트먼트	• 영남대 학사 • 서울대 석사	• 동서증권 펀드매니저 • 現 스틱투자자문 대표이사
최병화 (대참)		신한은행	• 광운대학교 경영학 학사	• 신한은행 산업단지금융본부 본부장 • 신한은행 기업부문 부행장보
권기형		우리은행	• 연세대학교 행정학	• 우리은행 자금시장본부 부행장 • 現 우리은행 기관고객본부 부행장
전영달		중소기업 진흥공단	•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	• 現 중진공 서울지역본부장
박종만		기술보증기금	• 계명대학교 무역학	• 신용보증기금 • 現 기술보증기금 이사
송문선 (대참)		산업은행	• 성균관대 무역학 학사 • 성균관대 대학원 무역학 석사	• 산업은행 종합기획부 부장 • 現 산업은행 투자금융부문 부행장